COMPA Insight 2026-07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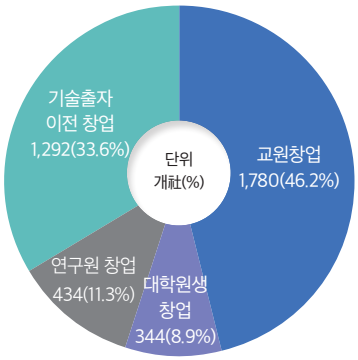
| 개요 05
|| 실험실창업 기업 현황 09
||| 기업 투자 현황 19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2024년도 생존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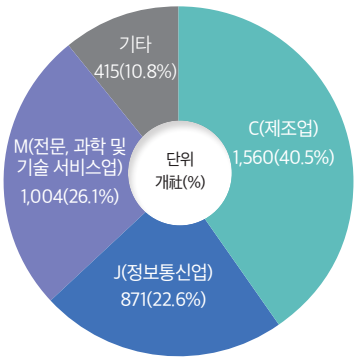
01 실험실창업 기업 수

(전체 3,850개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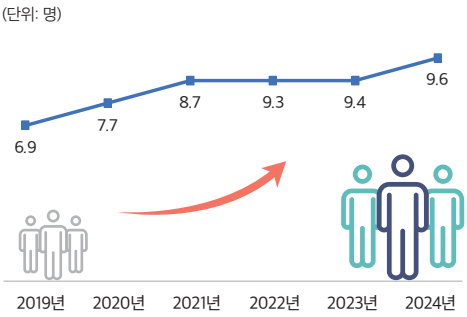
<실험실창업 기업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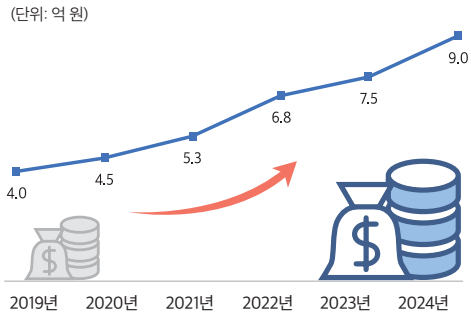
<실험실창업 기업 업종별 현황>

02 기업 고용·매출 현황





<실험실창업 기업 고용 현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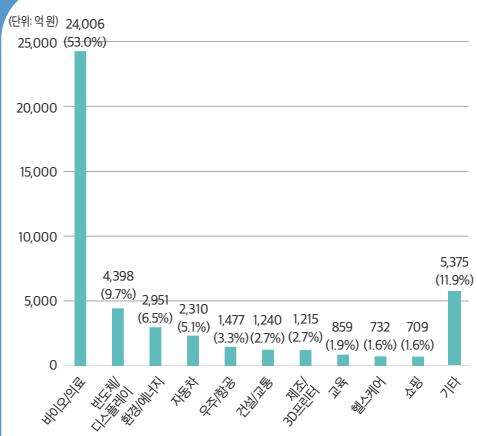


<실험실창업 기업 매출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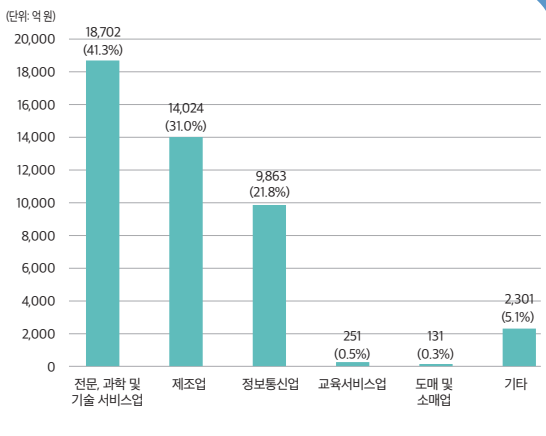
※ 각 연도별 고용 및 매출정보 보유기업 대상 평균 산출

03 기업 투자 현황





<투자 유치 금액 상위 10개 산업분야>



<업종별 투자 유치 현황>

※ 실험실창업 기업(2015년~2024년 설립)의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투자유치 정보가 확인되는 기업 878개社 대상 누적 투자유치 현황


COMPA

Ⅰ

개요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I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매년 실험실창업* 현황을 조사하여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 중

* (정의)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 본 조사에서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의 연구개발기관 중 '나'목, '라'목, '아'목에 해당하는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함

● **조사 목적**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실험실창업 기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창업 정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통계 자료 확보

● **조사 연혁** 「2019년 실험실 창업기업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실험실창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 중

- 2019년: 실험실 창업기업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19년~2022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설문) 시행
- 2023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방식 개편(모집단 분석과 연 1회 병행)
- 2023년~2025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시행 중(연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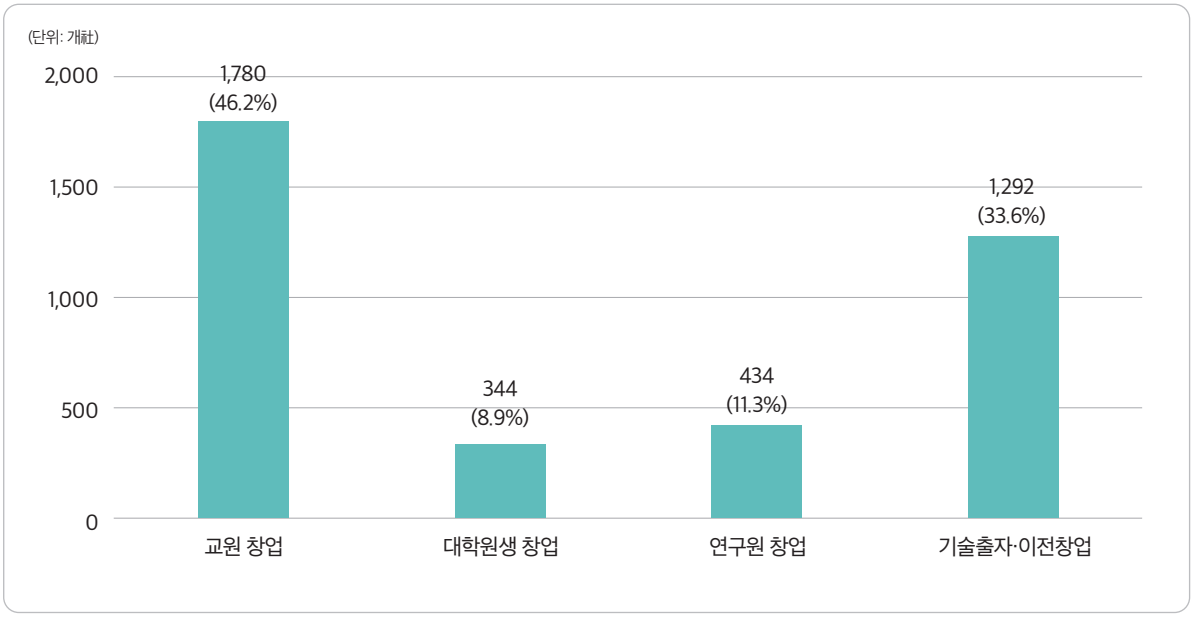
● **조사 대상** 2015~2024년도 창업하여 2024년 12월 현재 생존 중인 실험실창업 기업 3,850개社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수조사 하였으며, 해당기업 중 지표별 자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도출

● **조사·분석 방법**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실험실창업 기업 모집단 3,850개社에 대하여 관련 DB 연계* 및 지표별 결측 반영 분석

* 한국평가데이터(재무·고용 등), THE VC(투자 유치 현황),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R&D 참여·성과 등) 등

● **조사 내용** 실험실창업 기업의 일반 현황, 재무성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연구비 수혜 현황과 성과 등

< 그림1 > 실험실창업 기업 모집단 구성(조사대상 연도: 2024년)



(단위 : 개社, %)

유형		정의	기업 수(비율)
구성원 창업	교원 창업	• 대학 보유기술(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교수 창업기업 • 연구소기업 중 대학(4대 과기원)이 설립주체가 되어서 설립한 창업기업 • 과기정통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수혜를 받고 교원이 창업한 기업 • 기타	1,780(46.2%)
	대학원생 창업	• 대학 보유기술(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창업기업 • 과기정통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수혜를 받고 대학원생이 창업한 기업 • 과기정통부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사업의 수혜를 받고 대학원생이 창업한 기업	344(8.9%)
	연구원 창업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부처직할 출연(연)	434(11.3%)
기술출자 · 이전창업		• 연구소기업 (4대 과기원이 설립주체인 경우 제외)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	1,292(33.6%)
합계			3,850(100.0)


COMPA

II

실험실창업 기업 현황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Ⅱ 실험실창업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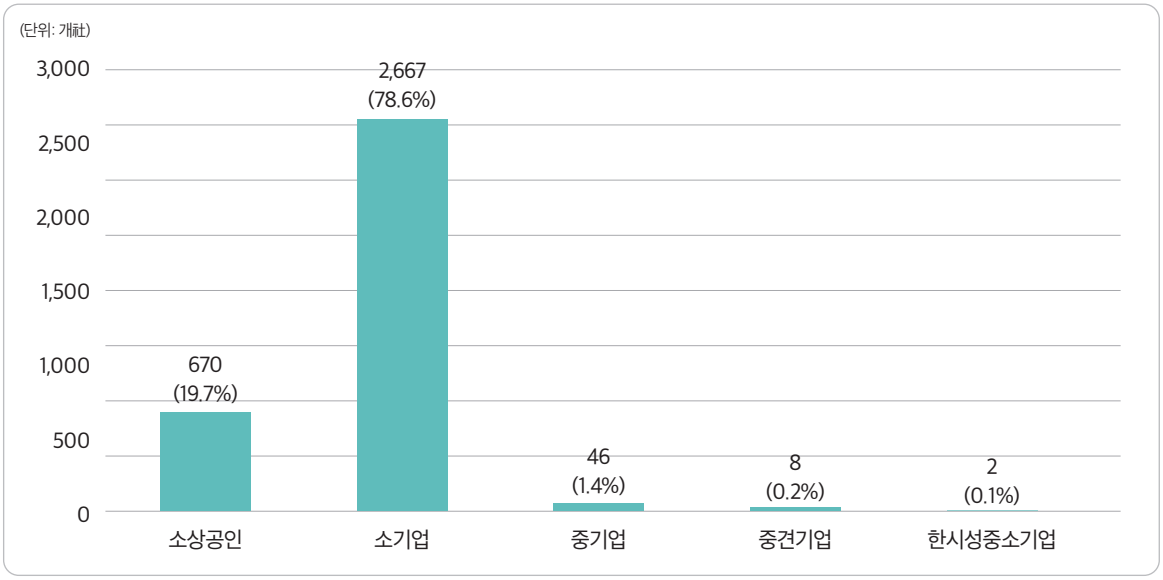
01. 일반 현황

● **기업규모** 기업규모 정보 보유 총 3,393개社 중 소기업 2,667개社(78.6%), 소상공인 670개社 (19.7%)로 전체 기업의 98.3%를 차지하며, 중기업 · 중견기업 · 한시성중소기업*은 56개社 (1.7%) 차지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일정기간(5년)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갖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 기업규모별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따름

<그림 2> 실험실창업 기업 규모별 현황



주 : 결측값 457개社 제외

(단위 : 개社, %)

구분	구성원 창업			기술출자 · 이전창업	총합계(비율)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소상공인	266(17.9)	72(26.9)	86(20.4)	246(20.2)	670(19.7)
소기업	1,195(80.6)	193(72.0)	321(76.1)	958(78.5)	2,667(78.6)
중기업	19(1.3)	3(1.1)	9(2.1)	15(1.2)	46(1.4)
중견기업	2(0.1)	0(0.0)	5(1.2)	1(0.1)	8(0.2)
한시성중소기업	1(0.1)	0(0.0)	1(0.2)	0(0.0)	2(0.1)
총합계	1,483(100.0)	268(100.0)	422(100.0)	1,220(100.0)	3,39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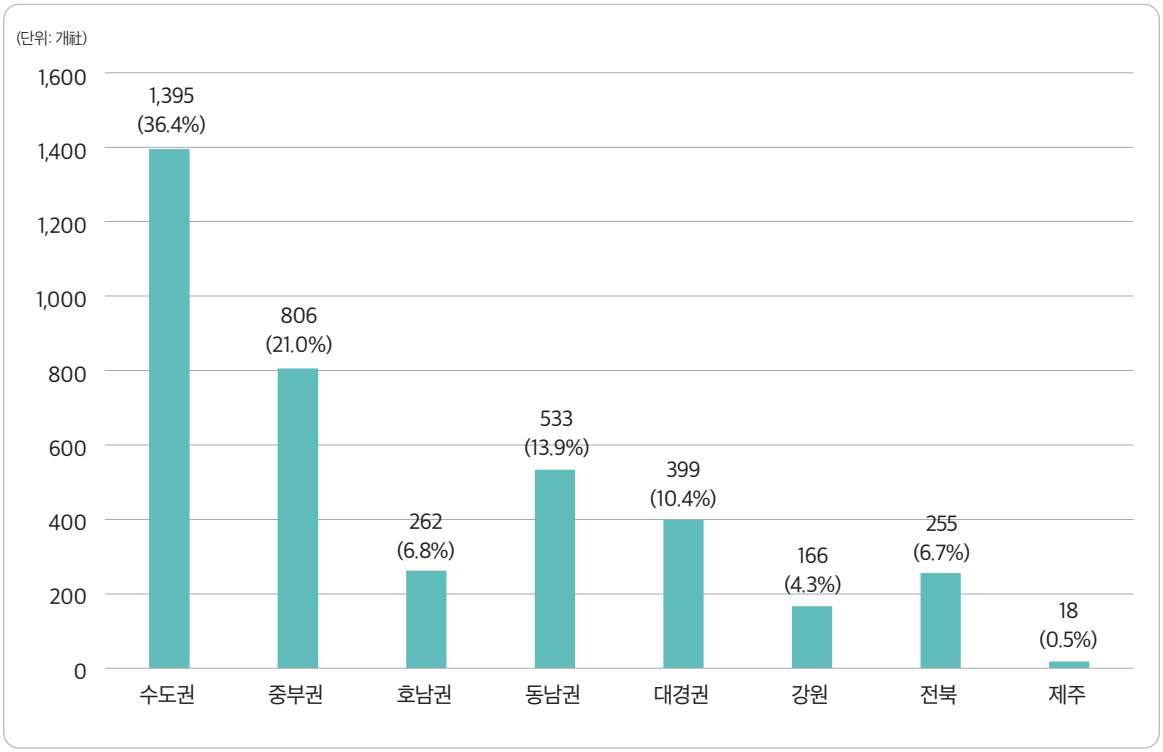
● **소재지** 기업 지역정보 보유 총 3,834개社 중,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1,395개社(36.4%)로 가장 다수, 중부권 806개社(21.0%), 동남권 533개社(13.9%)순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중부권: 대전, 세종, 충청 / 호남권: 전남, 광주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대경권: 대구, 경북

» 실험실창업 기업은 연구 인프라(연구시설, 장비, 연구개발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 출연(연)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수도권 1,395개社(36.4%), 중부권 806개社(21.0%)등)

※ 대학(331개 중 123개교, 37.1%), 공공연구기관(683개 중 264개 기관, 38.6%) 서울·수도권, 대전 분포[1)]

<그림 3> 실험실창업 기업 지역별 현황



주 : 결측값 16개 제외

(단위 : 개社, %)

구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합계
기업 수(비율)	1,395(36.4)	806(21.0)	262(6.8)	533(13.9)	399(10.4)	166(4.3)	255(6.7)	18(0.5)	3,83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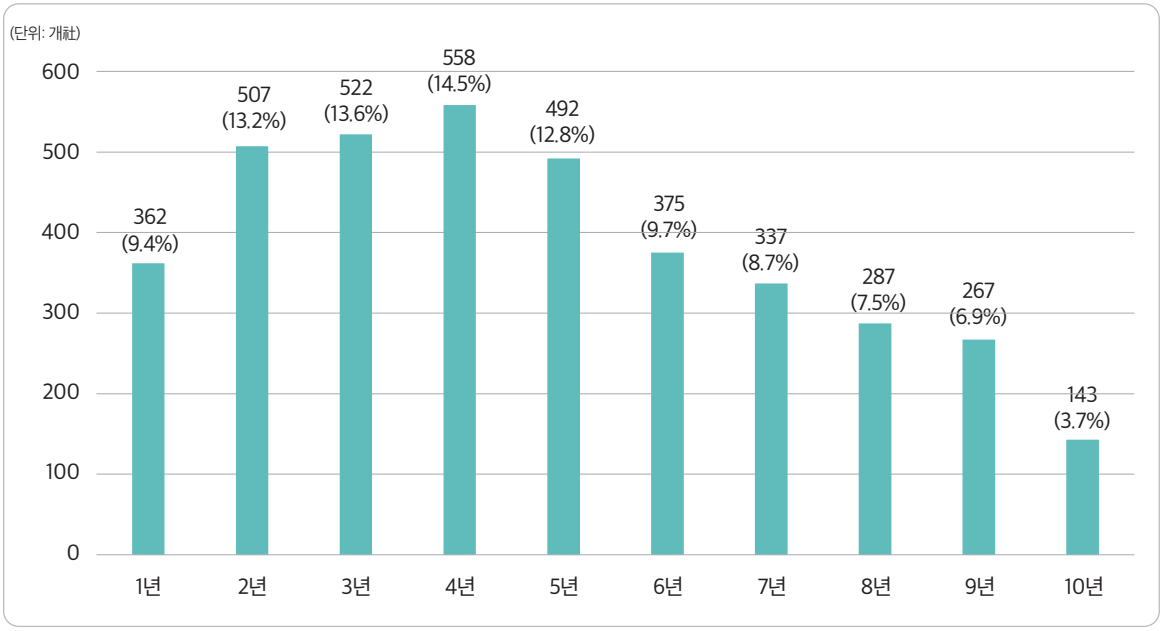
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중부권(대전, 세종, 충청) / 호남권(전남·광주)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대경권(대구·경북)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3.

● **업력**

기업 업력정보 보유 총 3,850개社 중, 3년 이하 1,391개社(36.1%), 3년 초과~5년 이하 기업 1,050개社(27.3%), 5년 초과~7년 이하 기업 712개社(18.4%)로, 7년 초과 기업 697개社(18.1%)

<그림 4> 실험실창업 기업 업력별 현황



(단위 : 개社, %)

구분	구성원 창업			기술출자·이전창업	총합계(비율)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1년(2024년 설립)	167(9.4)	52(15.1)	20(4.6)	123(9.5)	362(9.4)
2년(2023년 설립)	217(12.2)	95(27.6)	28(6.4)	167(12.9)	507(13.2)
3년(2022년 설립)	274(15.4)	63(18.3)	39(9.0)	146(11.3)	522(13.6)
4년(2021년 설립)	259(14.6)	56(16.3)	65(15.0)	178(13.8)	558(14.5)
5년(2020년 설립)	260(14.6)	25(7.3)	68(15.7)	139(10.8)	492(12.8)
6년(2019년 설립)	210(11.8)	15(4.4)	40(9.2)	110(8.5)	375(9.7)
7년(2018년 설립)	153(8.6)	17(4.9)	40(9.2)	127(9.8)	337(8.7)
8년(2017년 설립)	121(6.8)	13(3.8)	48(11.1)	105(8.1)	287(7.5)
9년(2016년 설립)	109(6.1)	3(0.9)	40(9.2)	115(8.9)	267(6.9)
10년(2015년 설립)	10(0.6)	5(1.5)	46(10.6)	82(6.3)	143(3.7)
총합계	1,780(100.0)	344(100.0)	434(100.0)	1,292(100.0)	3,850(100.0)

● 업종

기업 업종정보 보유 총 3,850개社 중, 제조업 1,560개社(40.5%)로 가장 많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004개社(26.1%), 정보통신업이 871개社(22.6%) 순

» 실험실창업 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이 90.8%로 높게 나타나며,**

* OECD 및 EU 기준을 준용하여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을 포함하였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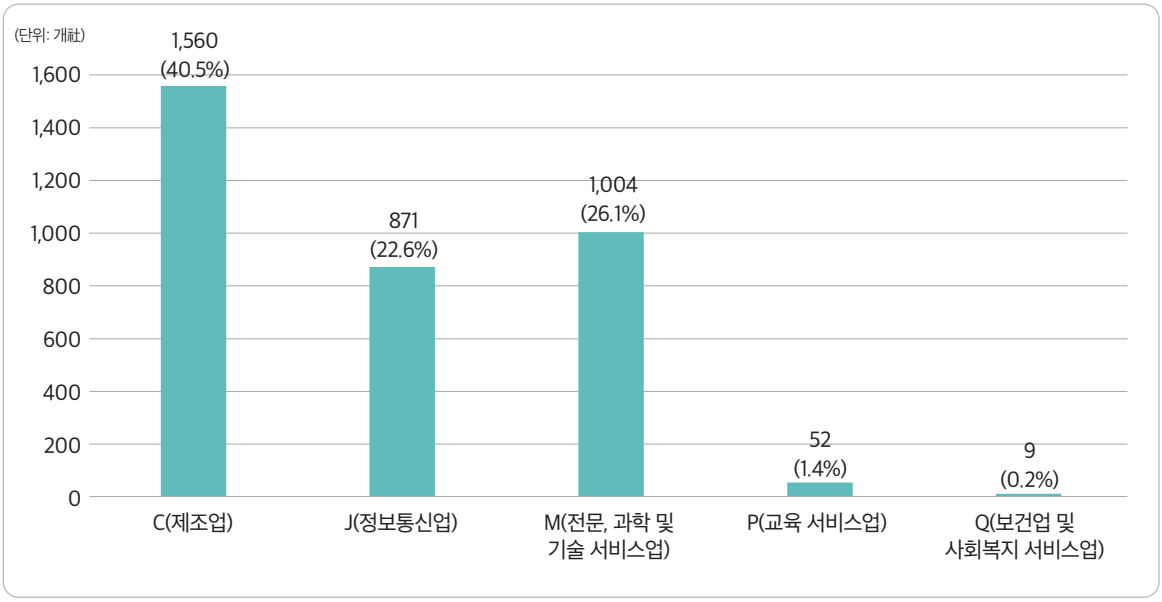
** 제조업 1,560개社(4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4개社(26.1%), 정보통신업 871개社(22.6%), 교육서비스업 52개社(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9개社(0.2%)

» 국내 중소기업(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의 기술기반업종 비율(17.6%)* 대비 약 5.16배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248,497개社(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2,119개社(4.5%), 정보통신업 158,707개社(3.2%), 교육서비스업 198,848개社(4.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2,521개社(0.7%)

※ 출처 :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5. 12.)

<그림 5> 실험실창업 기업 기술기반업종 현황



(단위 : 개社, %)

구분	구성원 창업			기술출자·이전창업	총합계(비율)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C(제조업)	582(32.7)	85(24.7)	222(51.2)	671(51.9)	1,560(40.5)
J(정보통신업)	403(22.6)	125(36.3)	87(20)	256(19.8)	871(22.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1(34.3)	75(21.8)	89(20.5)	229(17.7)	1,004(26.1)
P(교육 서비스업)	37(2.1)	4(1.2)	1(0.2)	10(0.8)	52(1.4)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4)	2(0.6)	0(0.0)	0(0.0)	9(0.2)
기술기반업종 합계	1,640(92.1)	291(84.6)	399(91.9)	1,166(90.2)	3,496(90.8)
비 기술기반업종 합계	140(7.9)	53(15.4)	35(8.1)	126(9.8)	354(9.2)
총합계	1,780(100.0)	344(100.0)	434(100.0)	1,292(100.0)	3,850(100.0)

기업 일반현황 요약 및 시사점

● 실험실창업 기업은 소기업(78.6%), 업력 3년 이하 기업(36.1%), 기술기반업종(90.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실험실 소속인력(교원, 대학원생 등) 중심으로 창업 준비 및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기업 비중이 높게(78.6%) 나타나며,
- 제조업(40.5%), 정보통신업(2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1%) 등 기술집약적 산업 분야에 집중

☞ 실험실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R&D, 기술검증 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02. 고용 및 재무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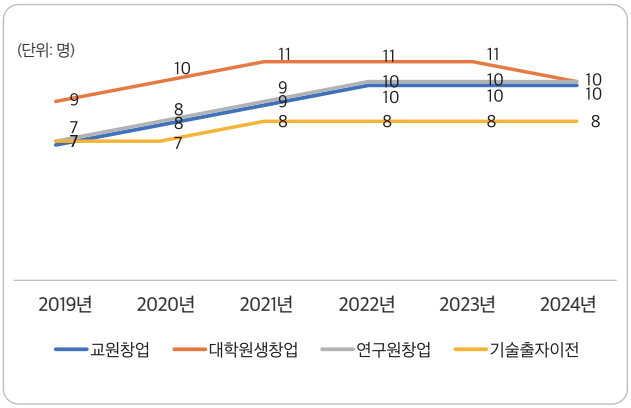
● **고용현황** 실험실창업 기업의 고용성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평균 고용인원도 증가
- 2019년 고용정보 보유기업 총 792개社의 총 고용 5,491명(평균 6.9명) → 2024년 고용정보 보유기업 총 2,014개社의 총 고용 19,249명(평균 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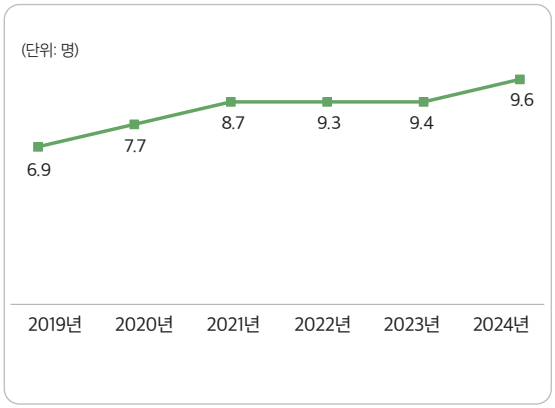
» 2023년도 실험실창업 기업의 종사자는 평균 9.4명(고용정보 보유기업 1,920개사, 고용인원 18,035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평균(1.69명)* 대비 약 5배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가 나타남

* 2023년 창업기업 4,902,489개社, 종사자 8,330,393명(평균 1.69명)

※ 출처 :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5.12.)

<그림 6> 실험실창업 기업 고용현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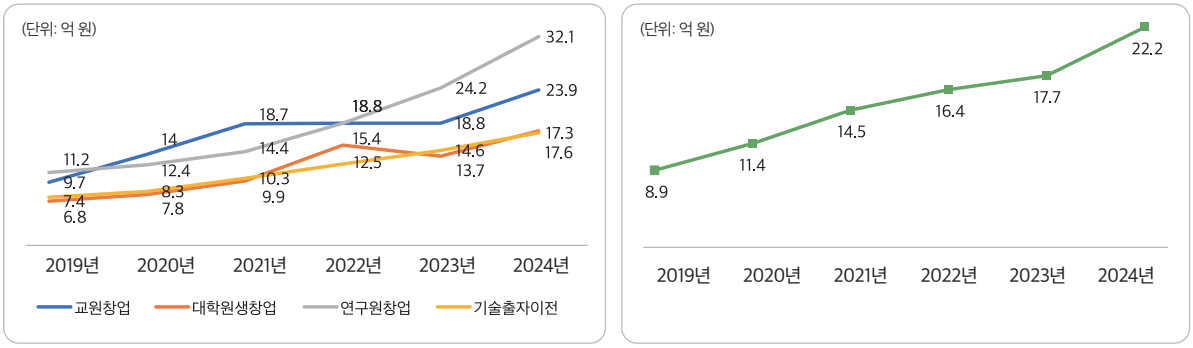


주 : 좌측은 구성원창업과 기술출자·이전창업 등 유형별 기준, 우측은 유형별 기업수를 가중한 가중평균 기준

● **자산현황** 실험실창업 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평균 자산도 확대

- 2019년 자산정보 보유기업 총 1,229개社의 총 자산 1조 934.1억 원(평균 8.9억 원)에서 2024년 자산정보 보유기업 총 2,454개社의 총 자산 5조 4,427억 원(평균 22.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그림 7> 실험실창업 기업 자산 현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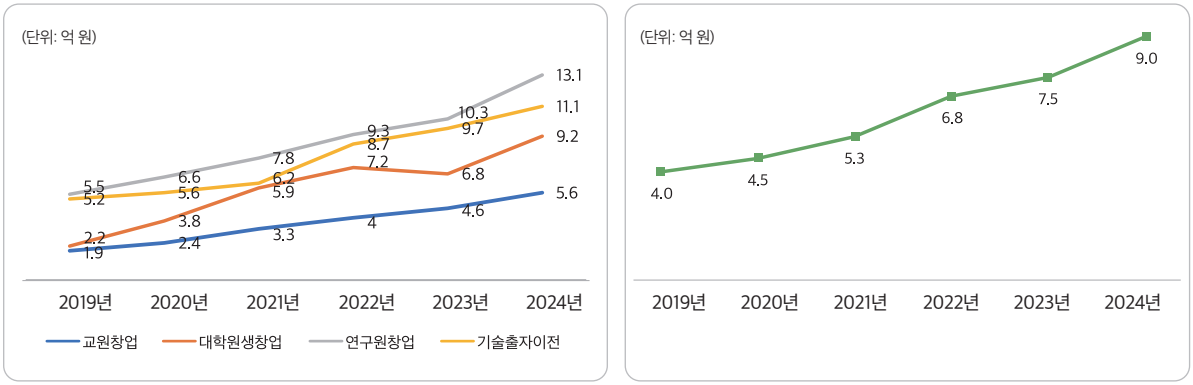


주: 좌측은 구성원창업과 기술출자·이전창업, 우측은 유형별 기업수를 가중한 가중평균 기준

● **매출액** 실험실창업 기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매출액도 증가

- 2019년 매출액정보 보유기업 979개社의 매출 총액 3,897.5억 원(평균 4억 원)에서 2024년 매출액정보 보유기업 2,142개社의 매출 총액 1조 9,324억 원(평균 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8> 실험실창업 기업 매출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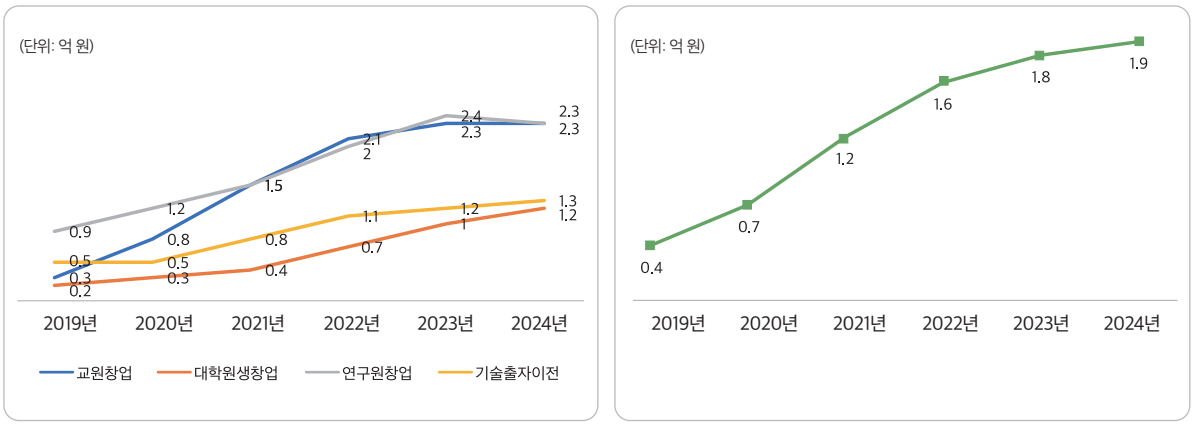
주 : 좌측은 구성원창업과 기술출자·이전창업, 우측은 유형별 기업수를 가중한 가중평균 기준

● **연구개발비** 실험실창업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연구개발비도 증가

* 연구개발비 정보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

- 2019년 연구개발비 1,648.2억 원(평균 0.4억 원)에서 2024년 연구개발비 7,226.6억 원(평균 1.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교원·연구원창업 평균 연구개발비가 대학원생, 기술·출자이전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9> 실험실창업 기업 연구개발비(평균)



주 : 좌측은 구성원창업과 기술출자·이전창업, 우측은 유형별 기업수를 가중한 가중평균 기준

● **고성장기업***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551개社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용근로자 모두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111개社(19.5%), 1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175개社(31.8%)

* (정의) 상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용근로자가 각각 20% 이상 또는 10% 이상 증가한 기업(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

● **가젤기업***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551개社 중, 가젤기업 20%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71개社(12.9%)이며, 10% 기준 해당기업은 112개社(20.3%)

* (정의) 고성장기업 중 최근 5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실험실창업 기업 중 고성장기업(111개社, 19.5%) 및 가젤기업(71개社, 12.9%)은 일반 활동기업의 고성장기업 비중 대비 약 9.3배, 가젤기업은 약 25.3배 높은 수준*

* 2024년 기준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 활동기업 26만 6천개社 중 20% 이상 고성장기업은 5,403개社(2.1%), 가젤기업은 1,356개社(0.5%)

※ 출처 :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국가데이터처, 2025.10.)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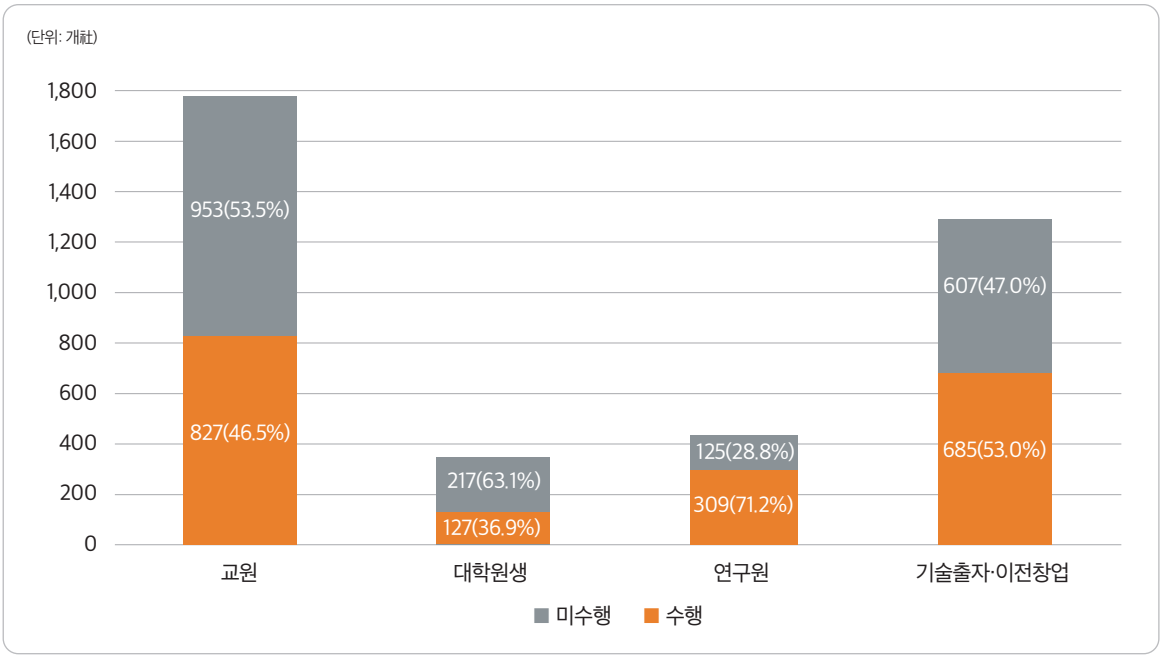
● **사업 수행 현황** 총 3,850개社 중 2018~2024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1,948개社(50.6%)

- 연구원 창업이 전체 434개社 중 309개社(71.2%)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출자·이전창업 1,292개社 중 685개社(53.0%)가 수행

» 실험실창업 기업의 절반 이상(1,948개社, 50.6%)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은 기술 고도화, 실증 등에서 정부R&D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의미

» 실험실창업 중 연구원창업 기업은 출연(연) 등 연구기관 소속 창업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역량이 높아 사업 수행 비중(71.2%)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0> 실험실창업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단위 : 개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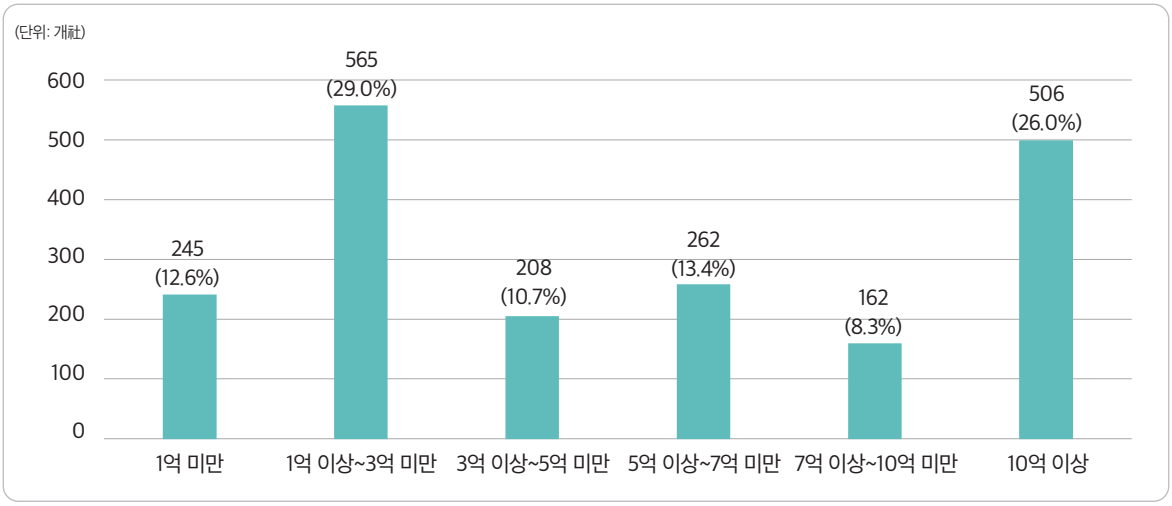
구분	구성원 창업			기술출자·이전창업	총합계(비율)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수행	827(46.5)	127(36.9)	309(71.2)	685(53.0)	1,948(50.6)
미수행	953(53.5)	217(63.1)	125(28.8)	607(47.0)	1,902(49.4)
총합계	1,780(100.0)	344(100.0)	434(100.0)	1,292(100.0)	3,850(100.0)

● **연구비 수혜현황**

2018~2024년 과제수행 1,948개社 중 1억 이상~3억 미만 수혜기업이 565개社(29.0%)로 최다이며, 10억 이상 수혜기업도 506개社(26.0%) 차지

※ 동일 기업이 2개 연도 이상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연도별 수혜액을 합산하여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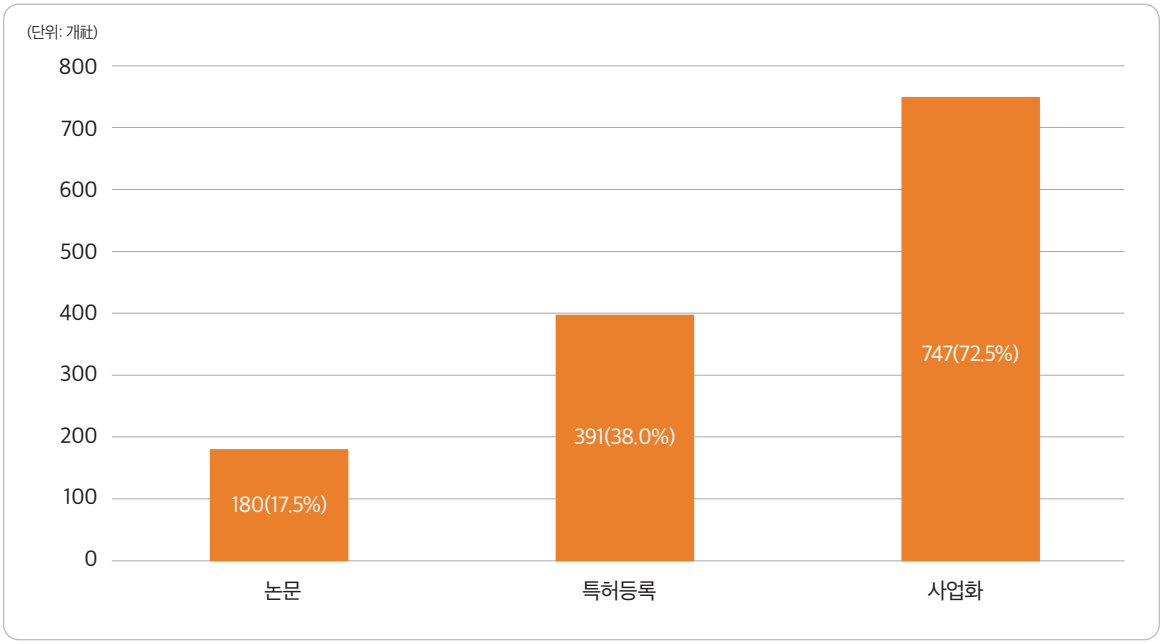
<그림 11> 실험실창업 기업 연구비 수혜 현황



● **연구성과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연구성과 보유기업 1,030개社 대상 조사 결과, 논문성과가 있는 기업은 180개社(17.5%), 특허등록을 한 기업은 391개社(38.0%)이며, 사업화[2]건수를 보유한 기업은 747개社(72.5%)로 나타남

<그림 12> 실험실창업 기업 연구성과 현황



※ 연구성과별 기업 수는 중복 제외 처리하지 않은 값으로, 동일 기업이 복수 성과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요약 및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948개社(50.6%)로 참여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창업유형별 참여율 격차(연구원창업 71.2% vs 대학원생창업 36.9%)가 확인됨

☞ 실험실창업 지원정책은 창업유형별 연구수행 역량·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 수행이 특허등록·기술료·매출로 성과가 이어지도록 후속지원 강화 필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 보유자가 직접 창업과 상품화, 공정개선을 수행하거나 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창업과 상품화, 공정개선을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3.)

III

기업 투자 현황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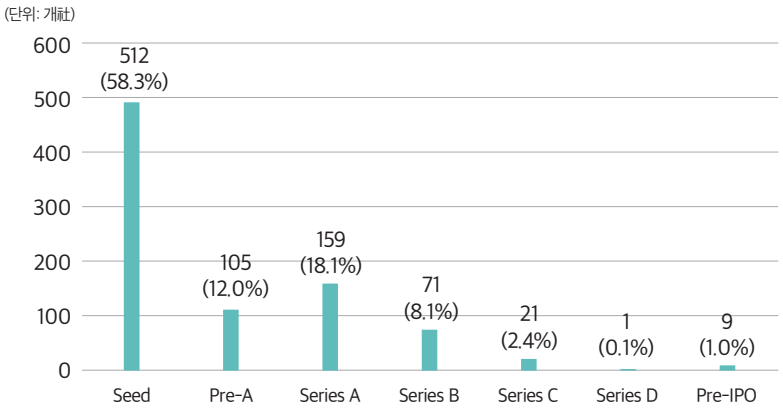
Ⅲ 기업 투자 현황

※ 실험실창업 기업(2015~2024년 설립)의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투자유치 정보가 확인되는 기업 878개社 대상 누적 투자유치 현황 분석

● 투자 유치 기업 현황

실험실창업 기업 총 3,850개社 중 투자유치 정보 보유기업은 878개社(22.8%)이며, 이 중 Seed가 512개社(58.3%), Series A가 159개社(18.1%), PreA가 105개社 (12.0%)로 전체 투자유치 기업 대부분이 Seed/Pre-A 단계의 초기기업

<그림 13> 투자단계별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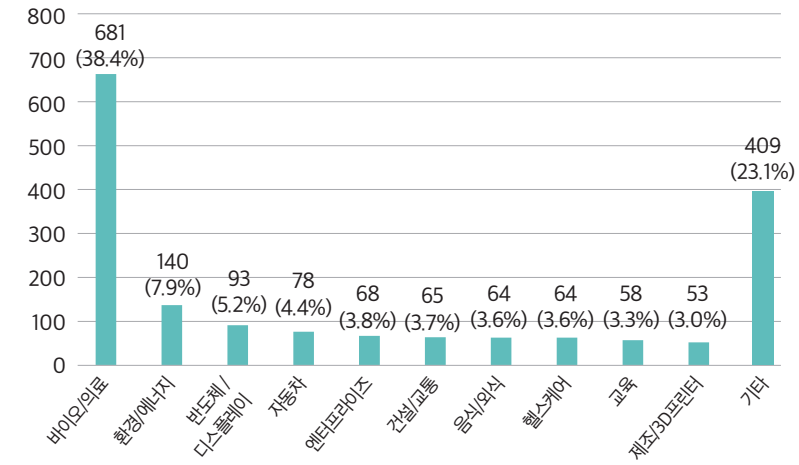
(단위 : 개社, %)

구분	기업 수(비율)
Seed	512(58.3)
Pre-A	105(12.0)
Series A	159(18.1)
Series B	71(8.1)
Series C	21(2.4)
Series D	1(0.1)
Pre-IPO	9(1.0)
총합계	878(100.0)

● 분야별 투자 유치 건수

실험실창업 기업 전체 투자 유치 건수는 1,773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투자를 유치한 산업분야는 바이오/의료(681건, 38.4%), 환경/에너지(140건, 7.9%), 반도체/디스플레이(93건, 5.2%) 순

<그림 14> 투자 유치 건수 상위 10개 산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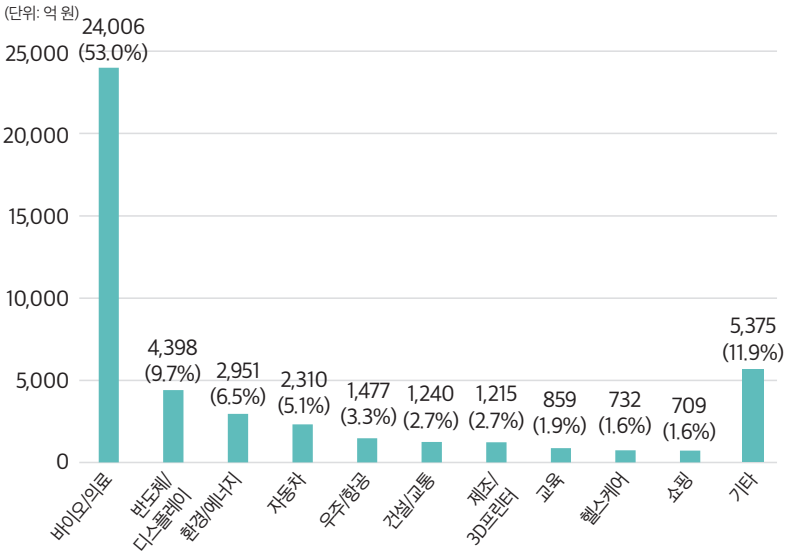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투자 건수(비율)
바이오/의료	681(38.4)
환경/에너지	140(7.9)
반도체/디스플레이	93(5.2)
자동차	78(4.4)
엔터프라이즈	68(3.8)
건설/교통	65(3.7)
음식/외식	64(3.6)
헬스케어	64(3.6)
교육	58(3.3)
제조/3D프린터	53(3.0)
기타	409(23.1)
총합계	1,773(100.0)

● 분야별 투자 유치 금액

실험실창업 기업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은 4조 5,2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투자를 받은 산업분야는 바이오/의료(2조 4,006억 원, 53%), 반도체/디스플레이(4,398억 원, 9.7%), 환경/에너지(2,951억 원, 6.5%) 순

<그림 15> 투자 유치 금액 상위 10개 산업분야



(단위 : 억 원, %)

구분	투자 금액(비율)
바이오/의료	24,006(53.0)
반도체/디스플레이	4,398(9.7)
환경/에너지	2,951(6.5)
자동차	2,310(5.1)
우주/항공	1,477(3.3)
건설/교통	1,240(2.7)
제조/3D프린터	1,215(2.7)
교육	859(1.9)
헬스케어	732(1.6)
쇼핑	709(1.6)
기타	5,375(11.9)
총합계	45,272(100.0)

» 실험실창업 기업의 산업분야별 투자 유치는 바이오/의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 중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분야 투자 유치 건수 비율 대비 약 2.16배, 투자 유치 금액 비율 대비 약 2.33배 높은 수준**

* 실험실창업 전체 투자 유치 건수 1,773건의 38.4%(681건), 투자 유치 금액 4조 5,272억 원의 53.0%(2조 4,006억 원)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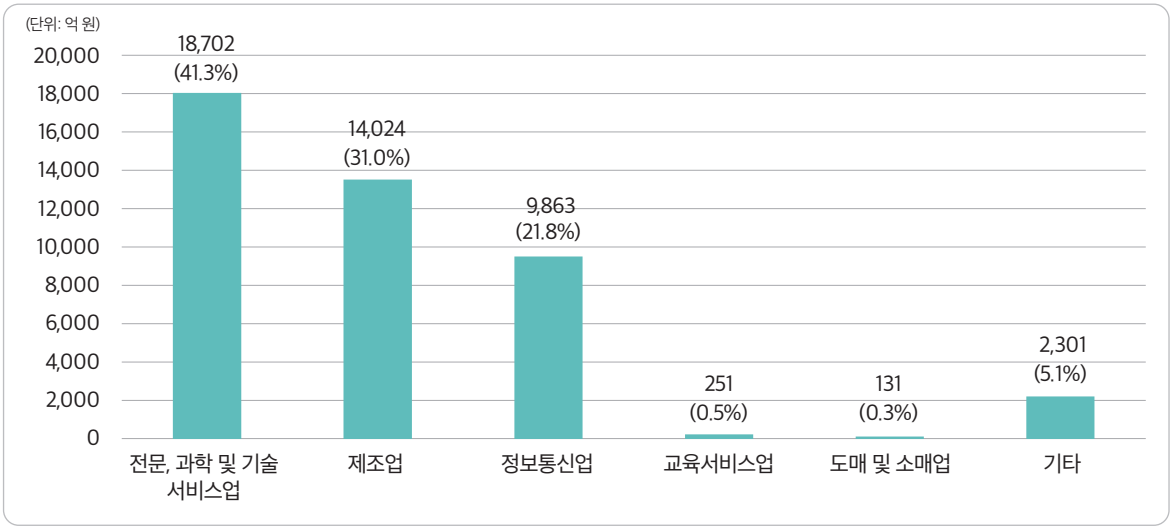
** 국내 스타트업 투자 통계 기준 유치건수(1,155건)의 17.8%(200건), 투자 유치 금액(6조 5,724억 원)의 22.7%(1조 4,927억 원) 차지

※ 출처 : 2025 한국 스타트업 투자 통계(THE VC, 2026.01.) (https://thevc.kr/discussions/korea_startup_funding_2025)

● 업종별 투자 유치 현황

투자 유치 규모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조 8,702억 원(41.3%)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1조 4,024억 원(31.0%), 정보통신업 9,863억 원(21.8%) 순

<그림 16> 업종별 투자 유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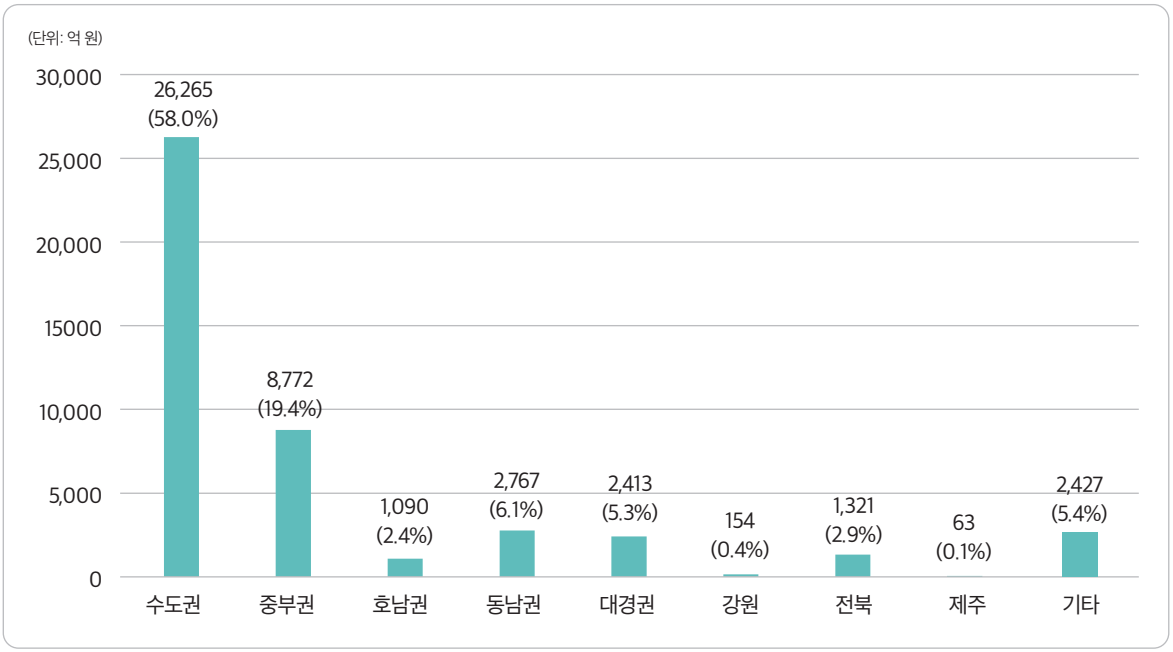
● **지역별 투자 유치 현황**

투자 유치 규모는 수도권 2조 6,265억 원(58.0%), 중부권 8,772억 원(19.4%), 호남권 1,090억 원 (2.4%), 동남권 2,767억 원(6.1%), 대경권 2,413억 원(5.3%)순

» 실험실창업 기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높은 비중(36.4%)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이 58%(2조 6,265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투자 유치가 수도권(58%)에 집중되고 호남권(2.4%) 등 비수도권의 투자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소재 실험실창업 기업의 투자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투자자 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 강화가 필요

<그림 17> 지역별 투자 유치 현황



주: 소재지 불명 기업의 투자 유치금액 및 비율 2,427억 원(5.4%)은 '기타'로 분류

투자 현황 요약 및 시사점

● 실험실창업 기업 중 투자유치 정보 보유기업은 878개社로, 투자 단계는 Seed·Pre-A·Series A 중심(88.4%)으로 이루어져 '초기 검증' 이후의 확장자금(Series B 이후)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초기 투자 유치 성과가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라운드(Series B+) 투자 연계 및 지역·업종 편중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

● 투자는 기술기반 업종에 사실상 집중(전문과학기술 41.3% · 제조 31.0% · 정보통신 21.8%)되고, 분야는 바이오/의료가 건수 681건(38.4%) · 금액 2조 4,006억 원(53.0%)으로 우세하며, 지역은 수도권에 2조 6,265억 원(58.0%) 투자가 집중됨

☞ 업종 · 분야 · 지역별 투자 집중도가 뚜렷한 만큼, 상대적으로 투자 유입이 낮은 분야·지역에는 시장검증 · 사업개발 역량과 투자자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균형 지원을 병행할 필요

이용시 유의사항

● **(자료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지표별로 분석에 활용된 표본이 상이할 수 있음
- 모집단은 2015~2024년 설립 기업 중 중복·사업자번호 이상·특정 업종 제외하여 확정하였으며, 일부 지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
- 성과지표는 생존기업에 한정된 결과이며, 실험실창업 전체의 성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유효표본·결측)** 기업별 재무, 고용, 투자, 국가R&D 참여 등 정보보유 여부가 달라, 지표별 유효기업 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따라서 총계·평균·비율은 각 지표의 유효기업 수를 기준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해석)** 고용·자산·매출액·연구개발비 등 연도별 추이는 해당 연도에 정보를 보유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 연도별 분석 대상 기업 수가 상이함(예: 고용_2019년 792개社 → 2024년 2,014개社)
- 따라서 연도 간 평균값 변동은 동일 기업군의 성장뿐 아니라 분석 대상 기업의 구성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투자 현황)** 투자 유치 데이터는 민간 투자 DB(THE VC)와 매칭하여 산출한 것으로, 투자 금액 비공개 건 및 투자DB 자체 결측값은 금액 합산에서 제외
- 따라서 실제 투자 유치 총액은 본 보고서 수치보다 클 수 있음

● **(정의·기준)** 고성장기업·가젤기업 등 일부 지표는 외부 통계 기준을 준용하므로, 본 조사 통계와 비교 시 정의 및 분석 대상 범위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는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경우만을 범위로 산정하였음
- 성과보유 여부 등 성과 발생 시차가 있는 지표는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도별 성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산출·표기)** 수치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표기하였으며, 증가율 등은 반올림 이전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재계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부통계)** 외부 비교통계는 발간 시점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연도가 상이할 수 있음

2025년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 행 일 2026년 5월

발 행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 구 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진규, 황지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승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OMPA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